

社會發展과 女子大學 教育



淑明女大 總長 金 玉 烈

I

先進國에 비하여 大學의 歷史가 깊지 못한 開發途上의 나라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方向이나 그 發展의 基本課題에 대하여 활발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女性의 大學教育이나 女子大學의 發展에 대한 社會的 關心이나 論議도 같은 脈絡에서 이해될 때 肯定的 뜻을 갖는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社會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60年代 이후 높은 經濟成長을 牽引車로 하여 시작된 産業社會의 發展을 社會, 文化 나아가서 教育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變化와 方向의 摸索을 必然的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大學의 位置와 使命에 대하여 다시 인식할 必要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女子大學 教育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社會가 발전하면서 女性의 社會參與의 폭이 점차 擴大되고 女性이 社會發展에 대하여 좀더 能動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支配的으로 되어 있으며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女性의 大學教育에 대한 論議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大學은 일반적으로 知識을 획득하고, 이를 傳達하며, 應用하도록 三位一體가 될 때 그 本來的 機能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

면 研究하고 이를 教育하며, 그 結果가 社會發展에 寄與하도록 하는 것이 大學의 機能인 것이다. 大學의 이와 같은 一般論的인 機能은 歷史的인 合目的性을 갖게 될 때 좀더 具體的이며 進取的으로 될 것이다. 大學은 人類文化를 이끄는 源泉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大學이 속한 民族文化의 暢達이라는 連繫를 통해서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大學의 民族史의 役割에 대한 理解의 重要性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社會는 지금 閉鎖的인 傳統社會로부터 開放社會로 급속히 轉換되는 過程에 있고, 또 東洋的인 것과 西洋的인 것이 混在하는 文化·思想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次元의 發展을 追求해야 할 時點에 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堅持하면서 우리의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發展을 具現하여 世界史의 發展에 參與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大學教育의 課題로 되고 있다.

女子大學 教育은 우리나라 大學의 이러한 課題를 똑같이 안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實現하기 위한 女性에 대한 高等教育의 內容은 大學教育의 一般性和 함께 特殊性도 포함한다는 점이 強調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民族史 또는 大學歷史의 展開過程 속에서 規定될 수 있는 것이다.

II

專門知識을 教授하고 知性人을 培養하는 大學의 基本的 役割을 女子大學의 경우에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産業社會가 발전하면서 專門知識과 專門技術을 가진 教育받은 人力에 대한 需要가 急増하고 있으며 이들은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 社會의 發展은 모든 분야에서 分業化·專門化되고 能率과 技術이 지배하는 時代가 到來함을 뜻한다. 이러한 産業社會의 變遷에 적응할 수 있는 條件을 구비한 女性만이 社會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고 時代가 要求하는 女性指導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現代文明은 모든 人類에게 無知와 貧困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豊요와 自由·平等社會의 希望을 안겨 주면서 끊임없는 成長과 發展을 持續시켜 왔다. 物質的인 豊요를 구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成果의 反對的 側面에서는 우리가 解決해야 할 새로운 課題를 提示하여 주었고, 그것이 또한 오늘의 大學의 使命에 連結되고 있음을 우리는 否認할 수 없다.

西歐의 先進文明은 흔히 物質文明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機能主義와 實證主義的方法論이다. 大學 또는 知識人의 社會的 役割이 지식의 創造과 傳達 그리고 그 實用的 應用이라고 볼 때, 「科學的」知識을 창조하려는 西歐的 學問의 方法論에 대하여 적절한 受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偏向된 나머지 物質主義에 탐닉되거나 便宜主義的 경향에 흐르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知識의 創造에는 「科學的」知識만이 아니고 바람직한 價値에 대한 理念的 知識을 포함시켜야 한다. 社會의 發展이 專門知識을 가진 實用의 人材에 대한 需要를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大學이 「眞理探究」라는 본래적 기능을 外面하고 社會의 현실적 要求에만 結付되는 反知性的 傾向을 갖게 되는 것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理念的 知識을 창조하는 大學의 役割은 機會主義 및 現實主義的 성품의 大學人보다는 責任感 있고 主體的 判斷力을 가진 指導的 人材를 培養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大學人의 배출은 바로 우리의 大學이 안고 있는 民族文化의 暢達이라는 課題를 실현하는 方向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國際化 時代에 살고 있다. 國際化 時代에의 適應은 民族文化에 대한 깊은 理解 없이는 積極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國際化 時代에의 능동적 대처는 우리의 民族文化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先進文化를 흡수하면서 自主的文化 創造의 과정을 具現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행했던 지난날의 民族史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自主·自立의 力量은 절실한 바 있으며 그것은 大學教育의 民族文化에 대한 探究 속에서 培養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國際化 時代 속에서 世界的인 統合的 眼目을 가진 人材를 養成해야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民族의 自主性을 가진 創意的 人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당연히 우리의 大學教育은 韓國的 狀況에 대한 깊은 研究를 통해서 學問의 課題를 해결할 수 있는 創造의 力量을 蓄積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먼저 우리 社會의 構造의 不均衡에 대한 分析이 선행되어야 한다. 産業社會의 급격한 發展過程에서 社會의 各分野에 깔려 있는 不均衡의 是正 즉 都市와 農村, 成長과 分配, 傳統과 近代部門간에 調和있는 均衡을 달성할 수 있는 力量의 蓄積이 女子大學을 포함한 모든 大學教育에 期待되어야 할 것이다.

III

女子大學 教育은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一般的 役割을 다하면서도 女子大學만이 갖는 특수한 役割을 並行함으로써 그 獨自的인 教育領域을 確保한다. 社會가 發展하면서 高等教育을 받은 女性이 社會의 各分野에서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擴大되고 있다는 것은 消極的으로는 開放 社會가 전개됨에 따라 傳統的인 男女差別에 대한 잠재적 낡은 認識이 拂拭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고찰하면 社會發展에 있어서 教育받은 女性의 獨自的 役割이 점차 伸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女子大學 教育은 大學教育의 一般的 課題나 社會的 要求에 受動的으로 順應하는 것 이상으로, 그 獨自의 內容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즉 女性의 社會的 役割에 대한 要求가 增大하는 것이 女權伸張에 따라 또는 社會的 活動機會의 擴大에 따라 주어지는 平面的 뜻을 갖는 것만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것은 社會發展을 위한 男女機能의 調和的 觀點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開放社會와 分業化·專門化가 그 能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社會에서 男女의 性的 差別의 意味는 不平等이라는 前近代의 思考 속에서가 아니고, 社會發展에 대한 그 機能의 分化가 충분히 進展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發見되어야 할 것이다.

女性은 이미 男性과 社會發展에 있어서 對立的이거나 男性의 補助的 位置에서가 아니라, 補充的이며 獨立의인 位置와 役割이 定立되어 가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女子大學은 大學教育이 갖는 一般的 役割을 遂行하면서도 女性의 高級人材의 독자적인 社會的 機能을 培養시켜야 할 課題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독자적 存在意義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女子大學 教育의 意義는 우리의 大學教育의 傳統性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初期의 우리 女子大學은 女性啓蒙의 役割을 目的으로 시작되었음이 事實이다. 女性啓蒙은 여성的高유한 長點과 無知에서 나오는 無力을 깨우쳐 줌으로써 잊었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아가서 自尊心을 回생시키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權利와 義務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民衆의 主權意識을 높여 주는 教育啓蒙의 大義를 실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教育啓蒙은 우리의 경우 開化初期의 封建的 인습 속에서 또는 日帝下 탄압정책 아래 半封建的인 社會的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女子大學의 設立과 그 教育은 女性保護의 性格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女子大學의 初期의 教育目標

가 賢母良妻를 배출하는 데 국한되었음은 자연스러운 歸結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觀點에서는 賢母良妻라는 女子大學 教育의 目標가 消極的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初期의 閉鎖的 社會에서는 新學問에 바탕을 둔 賢母良妻 思想의 高취를 통한 女性啓蒙은 積極的이며 進取的인 것이었고, 이러한 積極性과 進取性은 우리의 女子大學의 歷史 속에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IV

따라서 韓國의 女子大學은 우리나라 大學發展의 歷史와 傳統 속에서 그 實體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社會의 開放化가 進행되면서 女子大學 教育이 이에 부응되었다는 受動的 觀點보다는 女性의 社會的 役割을 증진시키는 能動的 機能을 다하였다는 觀點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歷史 속에서 전개되어 온 女子大學의 積極性과 能動性은 初期의 女性啓蒙의인 役割이 끝났다고 해서 否定될 수는 없다. 성숙한 多元化 社會가 전개될수록 女性의 社會的 役割은 보다 積極性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女子大學은 그것이 지니는 독특한 教育目標를 갖고 새로운 役割을 開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大學의 知識創造라는 基本的 役割을 수행하면서도 女性의 特性을 살리는 教育을 실시, 社會競爭에서 낙오되지 않고 능력있는 女性指導者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의 大學文化가 西歐文明 導入의 延長線上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西歐의인 것의 移植이 아니라 우리의 民族文化를 暢達하는 속에서 그 役割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歷史와 傳統 속에서 형성된 女子大學의 實體性은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女子大學 教育은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